

표현형 계층을 중심으로 한 FRBR 모형 분석 및 목록 체계 수용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FRBR Adoption into Cataloging Rule Focused on its Expression Level

조재인(Jane Cho)*

< 목 차 >

I. 서론	IV. FRBR 개념 수용을 위한 AACR 개선움직임
II. FRBR 개념과 구현 사례의 특징	V. FRBR 수용을 위한 우리 목록 체계 고찰
III. FRBR 모형의 표현형 계층 문제점 분석	VI. 결론

초 록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은 개체-관계형 모델을 기반으로한 서지 정보의 새로운 개념 모델로 향후 개정될 AACR 3의 기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JSC(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는 FRBR 개념을 수용하기 위한 다각도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표현형 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 표제의 전면적인 용도 변경과 GMD(General Material Designation)의 개선을 건의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FRBR의 발전 과정과 표현형 계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FRBR 개념 수용을 위한 AACR3의 개정 방향을 고찰한다.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른 우리 목록 규칙과 목록 레코드의 실제 작성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주제어: FRBR, 표현형, 영미목록규칙, 한국목록규칙, 통일 표제, 자료식별표시

ABSTRACT

FRBR, as is new conceptual model of bibliography based on entity-relation model, direct to revision of AACR 3. JSC has progressed work to adopt FRBR conceptual model into cataloging rule, especially for solving the problem of expression level, propose to overall change of uniform title & GMD. This study considers the matters about expression level of FRBR model. And examine possibility of adoption FRBR model to domestic cataloging rule and making out practice.

Key Words: FRBR, Expression level, AACR, KCR, Uniform title, GMD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선임연구원(chojane@keris.or.kr)
• 접수일: 2005년 5월 19일 • 최초심사일: 2005년 5월 30일 • 최종심사일: 2005년 5월 30일

I. 서론

1990년 스톡홀름 서지제어 회의에서 목록 작성의 비용 최소화와 서지제어용 도구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이 회의에서는 다양한 매체, 응용 및 기능을 수용하고 이용자의 정보 탐색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서지 레코드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목록의 기능적 요건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가 차세대 목록 체계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의 개발로 이어졌다. 디지털 매체의 출현과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하여 목록규칙에 새로운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1960년대 승인된 파리 원칙을 기반으로 한 목록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AACR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의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합동운영위원회, JSC(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에서는 AACR3로의 개정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AACR3는 매체간 적용의 유연성, 국제적 적용성 강화 등을 지향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개념은 FRBR 개념 모형의 수용이다. 서지적 세계를 개체-관계 방법론을 기반으로 재편한 FRBR 개념 모형은 기존의 평면적인 서지 구조를 속성을 포함한 복수개의 개체와 개체간의 상호 관계로 정의하였다. 특정 저작을 정점으로 그 아래 언어와 매체를 달리하는 다양한 파생 저작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개념 모델에서는 지적, 예술적 창조물인 저작(work)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구현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서지 요소를 4개로 계층화하고 이들이 구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JSC에서는 이러한 FRBR의 철학을 반영하기 위하여, FRBR 용어의 편입, 관계 유형 지시 용어의 고안 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FRBR의 구현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난제로 일컬어지고 있는 표현형 계층의 집중 기능과 연계 방안 모색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목록 체계에서는 자료의 내용과 물리적 매체를 거의 동일시하여, 물리적 매체를 기반으로 서지를 기술하여 왔다. 그러나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게 되고 매체간 저작물의 변환이 용이해 짐에 따라 더 이상 자료의 내용과 물리적 매체를 동일시하기 어렵게 되었다¹⁾. 동일한 내용이지만 형태와 표현 방식이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었고 따라서 내용과 매체를 혼용하고 있는 종래의 서지 기술 방식으로는 다양해진 매체와 표현 방식을 가지는 현대 저작물을 완벽하게 수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문제는 기구축 MARC 데이터를 FRBRize하기 위하여 대형 서지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현 사례에서도 방증되고 있다. LC(Library of Congress)나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와 같은 대표급 서지기구에서는 기구축 MARC 기반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FRBR 기반 구조로 자동 변환하는 알고리즘과 이용자가 브라우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저작 계층으로 연관 저록을 집중시키는 것에

1) 김정현, "AACR2R 2002 개정판의 개정내용과 특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1호(2003), pp.252-270.

그치게 되었고, FRBR의 차하위 계층인 표현형 계층으로 서지레코드를 집중시키는 것에는 적잖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과 매체를 혼용하고 있는 현대 서지 기술 구조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AACR은 표현형 계층의 집중을 위한 새로운 접근점을 모색하고 있으며, JSC에서는 그 대안으로 통일 표제의 전면적인 용도 변경과 GMD(General Material Designation)의 개선을 건의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FRBR의 발전 과정과 표현형 계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FRBR 개념 수용을 위한 AACR3의 개정 방향을 고찰한다.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른 우리 목록 규칙과 목록 레코드의 실제 작성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II. FRBR의 개념과 구현 사례의 특징

1. FRBR의 개념

FRBR에서는 개체-관계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한 활동과 관련된 사물집단을 개체(entities)로 정의하였고, 개체가 가지는 일련의 자질을 속성(attributes)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들 개체간에 형성되는 상호 관계(relationship)를 정의하였다.

FRBR 개념 모델에서는 서지 정보 엔티티를 3가지의 그룹으로 규정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지적·예술적 노력의 창조물에 관련된 엔티티로 정의하였다. 저작(work)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구현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서지 요소를 저작(work), 표현형(expression), 구현형(manifestation), 개별자료(item)의 4개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추상적 개념의 저작은 문자/숫자, 음성, 영상을 통하여 표현될 수 있으며, 도서, 잡지, 녹음자료, 필름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 또한 구현된 저작은 특정 카피라는 물리적 형태로 도서관에 소장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두 번째 그룹은 지적, 예술적 창조물의 생산 및 배포 또는 관리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엔티티로 정의하였다. 이 그룹은 개인과 단체로 구성되는데, 개인은 저자, 작곡가, 예술가, 편집자, 번역가 등 창조와 실현 또는 배포에 관련된 개인으로 정의되며, 단체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혹은 조직으로 정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지적 예술적 활동의 주제와 관련된 엔티티로 정의되었는데, 이는 저작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개체들로 개념, 사물, 사건, 장소를 포함한다. 그룹 2와 3은 그룹 1에 정의된 속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로 전거 통제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전거 번호와 레코드의 기능 요건(FRANAR : Functional Requirements of Authority Numbering and Records)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 FRBR의 구현 사례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FRBR 기반 구조로 자동 변환하기 위한 알고리즘 테스트는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나 LC(Library of Congress)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결과가 VTLS(Visionary Technology in Library Solutions)와 같은 상용 시스템 개발 벤더에게 응용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편목 시스템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²⁾

OCLC에서는 2003년 MARC기반 WorldCat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으로 FRBRize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최종 이용자가 저작 계층을 기반으로 연관된 저작물들을 편리하게 브라우징할 수 있는 웹 기반 프로토타입 ‘FictionFinder’를 개발하였다. OCLC에서 개발한 FRBR 알고리즘의 이름은 “Work - Set 알고리즘”으로 이는 NACO(Name Authority Cooperative Program)의 전거 레코드를 활용하여 레코드간 이형 표목을 매칭시키고 저작 계층의 기본 표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알고리즘은 표현형 계층 식별의 어려움 때문에, FRBR의 4개 계층에서 최상위 계층인 저작 계층으로만 연관 저록을 클러스터링 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알고리즘의 간략한 기능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전거 레코드로부터 ‘이름/서명’ 기본 표목과 변형을 추출하여 클러스터링을 위한 매칭 정보로 관리하고 클러스터의 대상이 되는 서지 레코드에서 저자명과 서명을 추출하여, 전거 레코드의 표목과 매칭시킨다. 알고리즘에서 정의한 규칙에 의해 일치한다면 동일 Work - Set으로 클러스터링하며, 전거 레코드에서 기 추출한 ‘이름/서명’ 기본 표목을 저작(Work)계층의 대표 엔트리로 지정한다. OCLC가 FRBR 웹 인터페이스로 개발한 ‘FictionFinder’는 소설류 탐색 인터페이스로 WorldCat에 존재하는 약 260만개의 소설류 서지 레코드를 대상으로 하였다. Work - Set 알고리즘으로 소설류 서지 레코드를 클러스터링한 결과 약 170만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되었으며, 클러스터 당 약 평균 1.5개의 서지 레코드가 그룹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 계층으로 클러스터링된 서지레코드를 언어 코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배열함으로써 표현형 계층을 제한적으로 표시하였다.

2001년에 LC의 Network Development and MARC Standard Office에서는 FRBR 개념을 응용하여 멀티 버전의 서지 레코드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동일 저작에서 파생된 다양한 연관 저록을 계층 구조로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버전의 자료를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도구이다. 특징적인 것은 웹 검색 결과로 출력된 데이터 셋을 대상으로 작동하는 웹 기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LC의 FRBR Display 틀은 이용자가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을 검색하여 검색 결과로 출력된 일련의 서지 레코드를 FRBR 구조로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검색된 서지 레코드를 저작 계층으로 클러스터링하기 위하여, 서지

2) 조제인, “FRBR 알고리즘 분석 및 KORMARC 데이터베이스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제38권, 제3호(2004, 9), pp.6-21.

레코드로부터 저자와 서명 관련 정보가 추출되며, 추출된 정보가 레코드간에 상호 매칭된다. LC의 FRBR 클러스터링 및 디스플레이 알고리즘의 기본 구성과 흐름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저자명 관련 정보(100 \$a,\$b,\$c,\$d 또는 110 \$a,\$b,\$c,\$d 또는 111 \$a,\$b,\$c,\$d)와 서명 관련 정보(240 \$a,\$d,\$k,\$m,\$n,\$p,\$r, 243 \$a,\$d,\$k,\$m,\$n,\$p,\$r 245 \$a,\$d,\$k,\$m,\$n,\$p,\$r 순)가 추출되어 서지 레코드간에 상호 매칭되며, 저자명과 서명이 일치할 경우, 동일 저작으로 클러스터링시킨다. LC에서는 표현형 계층의 클러스터링을 시도하였는데, 제한적이지만 MARC 데이터에서 비교적 기계적 추출이 가능한 리더의 레코드 유형 코드(06)와 008태그의 언어 구분(35-37)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였다. 다음은 FRBR Display 툴을 이용하여 웹 상에 출력된 일련의 서지 레코드를 FRBR 구조로 디스플레이한 예시이다. 'Scott, Walter'의 'Heart of Midlothian'이라는 저작은 영어 버전 및 러시아 버전의 표현형을 가지고 있다. 영어 버전은 다시 구현형으로 1999년도에 옥스퍼드에서 발간한 'The heart of Midlothian'과 1994에 펭귄북에서 발간한 'The heart of Mid-Lothian'로 구분된다. 구현형에서는 서명, 저작 책임, 출판 사항 및 형태 사항 등의 상세 서지 기술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

저작	Author: Scott, Walter, Sir, 1771 Work: Heart of Midlothian
표현형 1 Form: text - English	구현형 1 [Edition] - Title: The heart of Midlothian - Statement of responsibility: Sir Walter Scott ; edi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Claire Lamont. - Impri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Physical Description: xxviii, 583 p. : ill. ; 20 cm. - ISBN: 019283567X
	구현형 2 [Edition] - Title: The heart of Mid-Lothian - Statement of responsibility: Sir Walter Scott ; edi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Tony Inglis. - Imprint: Penguin Books, 1994 - Physical Description: lvi, 793 p. : 20 cm. - ISBN: 0140431292
표현형 2 Form: text - Russian	구현형 1 [Edition] - Title: Edinburgskaia temnitsa - Imprint: 1957 - Physical Description: 630 p. illus. 21 cm.

〈그림 1〉 FRBR 디스플레이 예시

전술한 바와 같이 대표급 서지기구에서 추진한 FRBR 구현 사례의 공통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름 및 서명 표목을 활용하여 FRBR 최상위 저작 계층으로 서지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하였다.

두 번째, 변환 대상이 되는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표목이 단일 전거 시스템에 의하여 전거 통제되었다.

세 번째, 저작 계층의 차하위 계층인 표현형을 위한 데이터 클러스터링은 언어와 레코드 형식 코드가 활용되어 제한적으로 구현되었다.

종전의 FRBR 응용 사례의 특징은 표준화된 이름, 서명 표목을 활용하여 저작 계층으로 서지 레코드를 클러스터링함으로써, 초보적 단계의 연관 저록 집중 기능을 실현하였다. 표현형을 포함한 완벽한 서지레코드 집중 기능 실현은 차후 단계의 과제로 남겨진 상황이다.

Ⅲ. FRBR 모형의 표현형 계층 문제점 분석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RBR은 연관 저록을 저작과 일부 표현형 계층으로 클러스터링 시키는 수준에서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FRBR이 지향하는 바는 이용자가 동일 저작의 표현형, 동일 표현형의 다른 구현형을 탐 다운 형식으로 완전하게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계별로 완벽한 목록의 집중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표현형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모호성, 그리고 실제 구현물 중심의 기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목록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FRBR 구현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논평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표현형 계층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1. 저작/표현형 계층 경계의 모호성

IFLA의 FRBR 최종 보고서에서는 저작을 지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독창성을 지닌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저작은 추상적 개체로서, 특정한 하나의 유형을 지닌 대상으로 지시하지 않고 개별적인 실현이나 표현형을 통하여 인식되는 내용상의 보편성으로 정의하였다. 기존의 텍스트를 개정하거나 갱신하여 내용이 변경된 텍스트는 단지 동일 저작의 표현형으로 취급하였으며, 기존 텍스트의 축약이나 증보, 악보에 반주부나 파트보를 추가한 것도 동일 저작의 상이한 표현형으로 취급하였다. 언어를 달리한 번역서, 개작이나 편곡, 더빙하거나 자막을 넣은 필름도 단지 동일 원작의 상이한 표현형으로 취급하였다. 반면, 지적이나 예술적 노력을 기울여 저작의 내용을 독립적으로 개정한 경우 새로운 저작으로 취급하였다. 의역서나 개작서, 아동용 개작서, 풍자적 개작서, 테마와 관련된 번주곡, 음악 작품에 대한 자유 편곡은 새로운 저작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저작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개체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저작을 구성하는 개념이 어떤 것이고 한 저작과 다른 저작간의 경계선이 어디가에 대해서는 문화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화권과 국가 차원에서 제정된 서지 규칙에서는 저작간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표현형은 문자 숫자나 기보, 부도법, 음향, 이미지, 대상, 움직임 등의 형식으로, 혹은 이들 형식의 조합형식을 통하여 하나의 저작을 지적 예술적으로 실현한 것을 말한다. 표현형의 형식이 표현형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형식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 새로운 형식으로 취급되며, 저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채용한 지적 규정이나 도구의 변화도 새로운 표현형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한 저작의 여러 표현형간을 서지적으로 구분하는 정도는 해당 저작 자체의 성격 및 예상되는 이용자의 요구에 상당한 부분 의존하고 있어서, 개체와 개체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분석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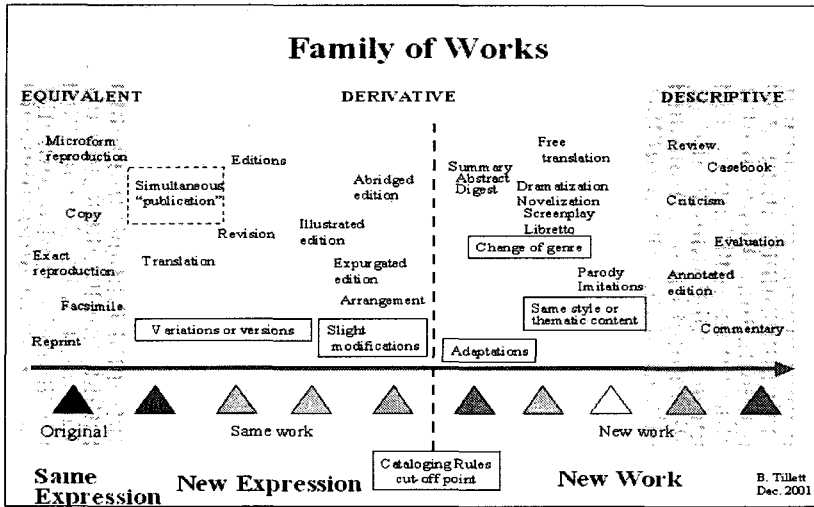
FRBR의 저작간, 표현형간의 의미와 새로운 저작간, 표현형간의 경계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 서지 세계 적용에 많은 비판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저작에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ISO 작업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ISO에서는 저작에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국제표준텍스트번호의 작업 문서 초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저작의 개념을 정의하고 표현형과의 경계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되었다. ISTC(International Standard Text Code)에서는 저작을 지적 예술적 내용의 추상적인 창작물로 정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저작과 표현형 계층의 경계를 무시하고 두 계층을 포괄한 새로운 개념으로 적용하였다. 파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원작을 수정한 저작 모두를 새로운 저작으로 간주하여, 원 텍스트와 번역된 텍스트에 별개의 ISTC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⁴⁾

한편, 릴레트는 연관 저록군에 있어서 동일 저작과 새로운 저작, 동일 저작내에 있는 동일 표현형과 새로운 표현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녀는 원 저작과 대등 관계에 있는 저작을 동일 저작으로 보았고, 반면 기술 관계에 있는 저작들은 새로운 저작으로 간주하였다. 파생 관계에 있는 저작은 정도에 따라 일부는 동일 저작으로, 또 일부는 새로운 저작으로 보았다. 그리고 동일 저작 군이라고 하여도 해당하는 연관 저록이 대등적 성격이 강할 경우는 동일 표현형으로 보았으며, 파생적 성격이 강할 경우, 새로운 표현형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이크로폼 자료, 카피본, 모사본, 재쇄본과 같은 경우는 동일 저작의 동일 표현형이 되며, 번역본, 교열본, 개정본, 증보본, 축약판, 삽도판, 각색본 등은 동일 저작이지만, 다른 표현형을 지닌 저작으로 보았다. 반면 요약본, 극본 등과 비평서, 극본, 사례집, 주석서 등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저작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⁵⁾

3)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 최종보고서(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3).

4) 이성숙, 김태수, "FRBR 모형의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제39권, 제1호(2005, 3), pp.196-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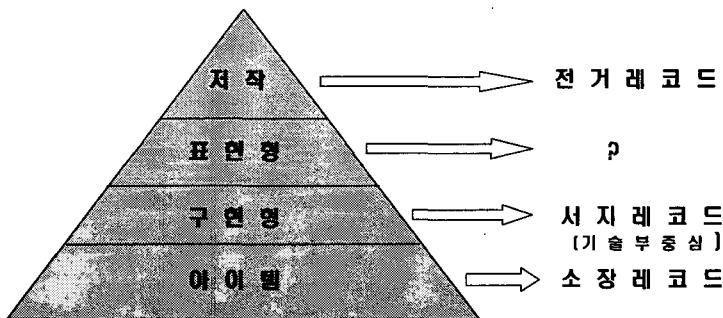
5) Babara Tillett, *What is FRBR*, ALA Annual Conference 2004, Orlando, <<http://www.ala.org/ala/a>>



<그림 2> 저작과 표현형의 구분 기준

2. 표현형 관련 기술 요소의 혼잡

서지 레코드가 표현형 계층을 중심으로 집중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지 레코드에서 접근점으로 활용할 속성을 추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저작, 표현형, 구현형, 아이템을 단순히 현행 목록 체계에 매핑시켜 볼 경우, <그림 3>과 같이 저작은 전거 레코드로 구현형은 기술부를 중심으로 하는 서지 레코드로, 아이템은 소장 레코드로 연계시킬 수 있다.⁶⁾



<그림 3> FRBR 개체와 서지/전거/소장 레코드의 연계성에 관한 개념도

lcts/alctscnted/presentations/presentations.htm> [cited 2005. 4.2].
 6) Jennifer Bowen, *FRBR and AACR : Expression in our Catalog*.
 <http://aall.omnibooksonline.com/2004/papers%5C35_F-5%20-%20Bowen%201.pdf> [cited. 2005. 3. 10].

그러나 다른 계층의 속성과 달리 표현형 계층의 속성들은 현행 목록 체계의 구성 요소와 단순하게 매핑시키기 어렵다. 특히, 리더, 고정장 및 기술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 유형'과 관련된 표현형의 기술 요소는 그 용도가 매우 혼잡스러울 뿐 아니라, 표현형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속성의 범주도 달라질 수 있다.

〈표 1〉에서는 개정될 통합 KORMARC 형식⁷⁾과 한국목록규칙 4판⁸⁾을 기준으로 서지 레코드에서 추출할 수 있는 관련 속성들을 예시하였다. 자료의 유형을 지시하기 위한 필드 중 부호화된 필드는 리더의 06(레코드 유형), 008태그의 18번째 자리부터(자료유형별 부호화정보), 245태그의 서브필드 h(자료식별표시)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특정 종별 자료 형태를 식별하기 위하여 고안된 007태그와 300태그의 서브 필드 a에도 자료 유형을 지시할 수 있는 부호가 혼재되어 있다.

고정장의 리더 06은 기술하고자 하는 자료의 유형을 식별하는 코드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자로 된 인쇄자료, 인쇄악보, 필사악보, 인쇄지도, 필사지도, 평면 영사자료, 구체자료, 녹음자료(음악 이외), 녹음자료(음악), 평면 비영사자료, 컴퓨터파일, 키트, 입체자료나 실물, 고서 중 하나를 자료의 유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007태그의 형태기술필드는 자료의 형태 사항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부호로써 알려주기 위한 필드로, 자료 범주에 따라 각기 다른 자료의 형태 사항을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도, 컴퓨터 파일, 구체, 영화, 고서, 녹음자료, 비디오 녹화 자료 등 중 택일하여 자료의 구현 형식을 지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리더의 06에서 지시하고 있는 자료 유형 지정어와 중첩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뚜렷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또한 자료의 유형과 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007태그의 '영화'와 '비디오 녹화자료'를 보면, '영화'는 자료 내용의 유형을 식별하고 있으며, '비디오 녹화자료'는 자료의 매체를 지시하고 있다. 008태그의 18번째 자리수 부터는 도서, 컴퓨터파일, 지도, 녹음자료, 악보,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고서, 혼합자료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술한 필드와 그 기능적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연계성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 역시 지정어에 자료의 유형과 매체의 구현 형식이 혼재되어 있다.

한편, 245태그의 서브필드 h에 기입하도록 되어있는 자료식별표시(GMD)는 인쇄자료 이외의 각종 형태 자료의 자료 종별 성격을 나타내는 매체 지정어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매체 지정어를 위한 어휘 리스트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 또한 자료 유형과 관련된 각종 속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특정자료종별 언어를 기입하도록 정의되어 있는 SMD(Specific Material Designators)와도 그 기능적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AACR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JSC에서는 표현형의 자료 유형간 식별을 위해서 GMD를 활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7)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서지용 KORMARC(안)(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4).

8)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 제4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표 1〉 자료의 유형과 형식에 관한 부호화된 속성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리더 06	레코드 유형		a 문자로된 인쇄자료 c 인쇄악보 d 필사악보 e 지도자료 g 평면 영상자료 h 구체자료 i 녹음자료(음악 이외) j 녹음자료(음악) k 평면 비영상자료 m 컴퓨터파일 o 키트 r 입체자료나 실물 w 고서
			악보 score 성악보 vocal score 합주보 클로즈 스코어 close score 합창보 chorus score 콘덴스 스코어 condensed score 총보 score 파트보 part 피아노 스코어 piano score 미니어추어스코어 miniature score 피아노[바이올린등] piano [violin, etc.] 녹음 카트리지 sound cartridge 지휘용 파트보 conductor part
007	형태 기술 필드	300 a	지도(007/00 = a) 전자자료(007/00=c) 구체(007/00=d) 축감자료(007/00=f) 평면영상자료(007/00=g) 마이크로자료(007/00=h) 평면비영상자료(007/00=k) 영화(007/00=m) 원격탐사도(007/00=r) 기트(007/00=y) 악보(007/00=q) 녹음자료(007/00=s) 문자자료(007/00=t) 비디오녹화자료(007/00=v) 고서(007/00=o) 형태를구분할수없는자료(007/00=z)
			녹음 카세트 sound cassette 음반 sound disc 녹음 테이프 릴 sound tape reel 사운드 트랙 필름 sound track film 단면도 map section 도표 diagram 원격탐사도 remote-sensing image 지구의 globe 지도 map 지도책 atlas 지형모형 relief model 전망도 view 천구의 celestial globe 천체도 celestial map 축면도 profile
008	자료 유형별 부호화 정보	300 a	도서: BK 전자자료 지도자료: MP 녹음자료: MU 계속자료: SE 시청각자료: VM 고서: RB 복합자료: MX
245 h	자료 식별 표시 (GMD)		악보 music 녹음자료 sound recording 지도자료 map 지구의 globe 영화 motion picture 비디오녹화자료 videorecording 화상자료 graphic materials 입체자료 3D 전자자료 electronic resource 마이크로자료 microform 점자자료 braille
		그림 picture 그림엽서 postcard 지도 wall chart 방사선사진 radiograph 복제화 art reproduction, art print 사진 photograph 설계도 technical drawing 슬라이드 slide 원화 art original 인쇄사진 stereograph 차트 chart 투명스페이런시 transparency 판화 engraving 포스터 poster 플래시카드 flash card 플립차트 flip chart 필름스트립 filmstrip 필름슬립 filmstrip 필름 카트리지 film cartridge 필름 카세트 film cassette 필름 릴 film reel 필름 루프 film loop 비디오카트리지 videocartridge 비디오카세트 videocassette 비디오디스크 videodisc 비디오릴 videoreel 전자 광디스크 electronic optical disk 전자 디스크 electronic disk 전자 디스크 카트리지 electronic disk cartridge 전자 칩 카트리지 electronic chip cartridge 전자 카드 electronic card 전자 테이프 릴 electronic tape reel 전자 테이프 카세트 electronic tape cassette 전자 테이프 카트리지 electronic tape cartridg 아파추어카드 aperture card 마이크로필름 microfilm 마이크로피쉬 microfiche 마이크로팩 microopaque	

GMD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SMD와의 모호한 기능적 차이 때문에 GMD의 해체 또는 전면적인 기능 개선에 관한 필요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AACR에 규정된 GMD에 대한 주요 쟁점은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에 관련된 자료 유형 지정어와 매체에 관련된 지정어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GMD 리스트인 'Music'과 'Sound Recording'을 일례로 살펴보면, 'Music'은 자료의 유형에 근접하는 지정어로, 'Sound Recording'은 매체에 근접하는 지정어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GMD가 표현형 계층의 식별자라도 구현형 계층의 식별자라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IV. FRBR 개념 수용을 위한 AACR 개선 움직임

MARC(MAchine Readable Cataloging), MARC21,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XML DTD(Extensible Markup Language document type definition)와 같은 통신 표준과 더블린 코아, EAD MPEG7과 같은 메타데이터 스탠다드가 등장하여 디지털 도서관 영역에 꾸준히 응용되고 있다. 또한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와 같은 가상의 전자 프로젝트가 국제적 수준에서 응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FRBR 개념이 파리 원칙을 대체하는 목록의 기본 원칙으로 승인됨으로써, 영미목록규칙은 개혁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 AACR 주요 개정 방향

1961년 IFLA의 파리 원칙이 승인된 이래, 1978년에 제정된 AACR은 그후 3번의 개정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AACR의 개정은 미국도서관협회, 오스트레일리아 목록위원회, 대영도서관, 캐나다 목록위원, 미의회도서관 등 5개 기관이 설립 기관으로 되어 있는 합동운영위원회, 즉 JSC에서 파견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1997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JSC는 목록 개정의 원칙, 내용(Content)과 매체(Carrier)의 문제, AACR의 논리 구조, 연속간행물, 국제적 적용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전세계 목록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뒤이어 200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국제목록전문가회의에서 FRBR 개념이 목록의 새로운 기본 원칙으로 승인됨으로써, JSC는 그에 따른 AACR3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AACR 개정의 주요 목적은 모든 매체의 기술과 접근에 대한 국제 표준을 지향하고, 형식이 나 특정 언어로부터 자유로우며, 검색, 식별, 선정, 획득이 용이한 새로운 체계로 거듭나는 것이

다. AACR3의 세부목표는 FRBR의 수용 이외에도 개요, 규칙, 예시, 전거 부분의 전면적인 수정과 기존 규칙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규칙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AACR이 도서관 이외에 커뮤니티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세부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⁹⁾

AACR3 개정에 있어서 FRBR의 수용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의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 1) FRBR 용어의 적용
- 2) 표현형 레벨의 집중 기능 달성
- 3) GMD에 있어서 내용(Content)과 매체(Carrier)의 문제 해결
- 4) Relator Term의 개선

2001년 8월 JSC는 FRBR의 용어를 AACR에 적용하도록 결의하고 그때부터 저작, 표현, 구현, 아이템이라는 FRBR 개체에 관한 기본 용어의 검토와 이와 관련된 규칙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FRBR 용어와 관련하여 리바에 의하여 주도된 작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AACR 1, 2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FRBR의 저작, 표현, 구현, 아이টে에 관련된 용어와 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② AACR Glossary에 저작, 표현형, 구현형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포함되도록 한다. 아이টে과 같이 AACR에 기존재하는 용어는 FRBR에서 정의한 개념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한다. ③ 다양한 엔티티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서지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용어를 제안한다. 특히, 동일 표현형을 가지는 다양한 구현형에 있어서 표현형과 구현형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용어적 정의와 동일 저작을 가지는 다양한 표현형에 나타나는 저작과 표현형, 표현형과 표현형간의 관계 지시 용어가 필요하다.¹⁰⁾

또한 관건으로 부각된 표현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JSC에서는 표현형을 대표할 수 있는 표목의 고안을 제시하고 표현형 계층의 서지 레코드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저작/표현형” 표목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내용의 유형과 매체가 혼재되어 있는 GMD 리스트의 용도를 변경하여 표현형 계층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도록 제안한 상황이다.

2. 표현형 계층 수용을 위한 주요 개정 내용

가. 통일 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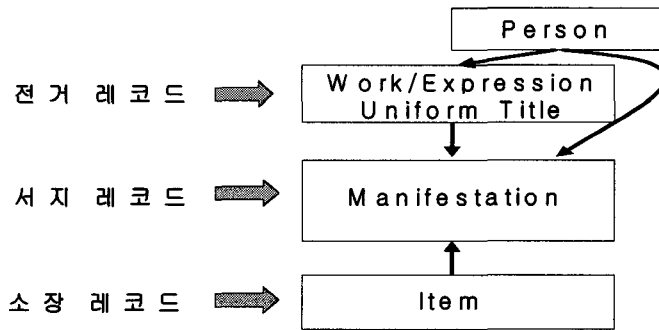
JSC의 FVWG(Format Variation Working Group)는 FRBR 표현형 계층을 목록 체계내에 수

9) Babara Tillett, *AACR3 :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ALA Annual Conference 2004, Orlando, <<http://www.ala.org/ala/alcts/alctsconted/presentations/presentations.htm>> [cited 2005. 4.3].

10)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JSC), *Incorporating FRBR Terminology in AACR : Terms of Reference*, <<http://www.collectionscanada.ca/jsc/frbr1.html>> [cited, 2005. 4.1].

용하기 위하여 AACR 25장 통일 표제 부분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핵심 내용은 통일 표제 뒤에 표현형 계층의 속성을 추가하여 FRBR의 저작과 표현형 계층을 표시할 수 있도록 용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통일 표제는 고전이나 성서, 경전과 같이 한 저작이 몇가지 서로 다른 서명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이것을 목록에서 한자리에 모으기 위하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금번 목록 규칙 개정을 통하여 저작의 표제와 표현형을 지시하는 특정 표목을 조합한 새로운 개념으로 통일 표제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은 FRBR을 현행 목록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발표한 톨레트의 구상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녀는 <그림 4>와 같이 서지를 복수개의 개체로 구성된 패키지 형식으로 구조화하였는데, 구현형이 패키지의 핵심 개체가 되고 거기에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저작/표현형, 개별 자료, 사람에 해당하는 개체가연계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저작/표현형 개체는 통일 표제 전거 레코드, 개별자료는 소장 레코드, 사람에 관련된 개체는 이름 전거 레코드에 해당된다. 현행 레코드 체계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명의 전거 통제를 위하여 활용된 통일 표제 전거 레코드가 FRBR의 “저작/표현형” 표제를 위한 전거 레코드로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것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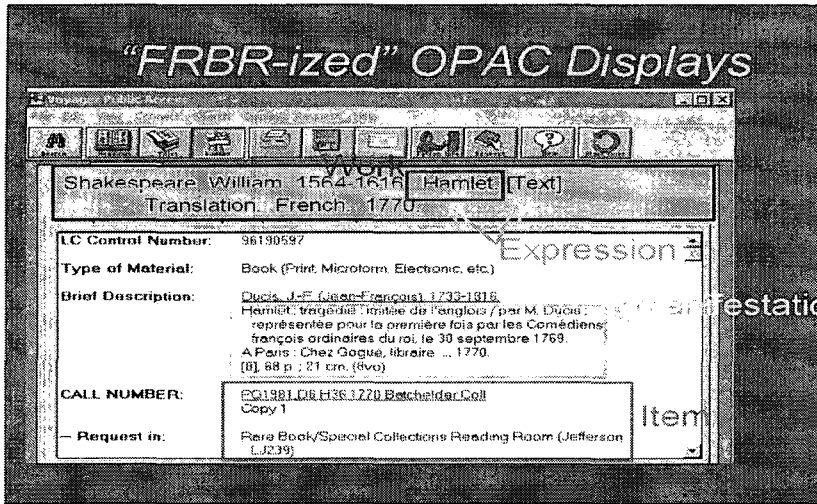


<그림 4> FRBR 응용을 위한 시나리오 : FRBR 개체와 레코드 구조

톨레트는 이를 기반으로 <그림 5>와 같은 OPAC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제시하였다.

OPAC 상단에는 서명저자사항이 디스플레이되며, 세부 서지 기술내용에는 부호정보와 기술사항 및 소장사항이 표시된다. 서지 기술사항은 FRBR의 구현형, 소장사항은 아이템에 해당되며, 서명저자사항이 저작과 표현형 계층에 해당된다. 위의 예시에서는 “Hamlet”이라는 서명이 저작 계층의 표제에 해당되며, “[Text] Translation, French, 1770”이 해당 저작물의 표현형을 지시하는 표목으로 활용되고 있다.

11) Babara Tillett, *The FRBR Model for Bibliographic Records*, Australian Committee on Cataloguing, 2002.



<그림 5> FRBR 응용을 위한 시나리오 : OPAC 디스플레이 화면

위와 같은 릴레트의 구상을 바탕으로 JSC가 진행을 구체화하고 있는 통일 표제의 개정 내용은 서지 레코드의 통일 표제 필드에 저작의 표제와 표현형의 속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 240 10 ▼aHamlet ▼h[text] * translation, french

> 245 10 ▼aHamlet : ▼btrage>die, imite>e de l'anglois en cinq actes et en vers / ▼cpar Monsieur Ducis.

* 식별기호 및 입력 규칙 보완 필요

위와 같이 기술되도록 함으로써, 원저작 'hamlet'과 관련된 다양한 연관 기록들이 저작 계층으로 집중될 수 있으며, 'hamlet'의 표현형 [text]를 배열의 기준으로 관련된 번역서들이 다음과 같이 집중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Shakespeare, William, 1564-1616. Hamlet.

+ Texts

+ translation

- Hamlet : trage>die, imite>e de l'anglois en cinq actes et en vers /par Monsieur Ducis.

+ Motion Pictures

+ Sound Recordings

그러나 [Text], [Sound] 등 표현형을 지시하는 자료 유형의 지정어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개별 지정어마다 개정, 번역, 연주, 공연 등 하위 구분을 위한 속성명의 정의와 기술 방법 등도 제시되어야 한다. 표현형을 지시할 수 있는 지정어로 GMD를 활용하지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정어 리스트가 개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별 유형에 따라 어떠한 하위 구분이 필요하고 하위 구분에 따라 어떠한 속성이 정의되어야 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배열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결정된 바가 없다. 또한 규칙에서 미리 한정해 놓을 수 있는 지정어와 속성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제정될 규칙의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나. GMD

JSC는 새로운 유형과 혼합형 매체의 빈번한 등장으로 불거지고 있는 GMD

(General material designation)의 문제점과 미래의 활용 방향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특히 FRBR 표현형의 집중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GMD 리스트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에 AACR 1에서 GMD는 [Motion Picture]와 [Filmstrips]로 구분되어 동일 표제를 가지고 있는 도서와 그 밖의 자료를 구분하기 위하여 활용되어왔다. 1977년 ISBD에 GMD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후 AACR2에서는 본격적으로 GMD 리스트가 추가되었다. GMD는 자료의 유형을 신속하게 선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자료 선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으나, 자료의 매체가 다양해지고 웹 OPAC이 활성화되면서 현행 GMD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케리니는 GMD와 관련한 이슈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 GMD 리스트에는 자료의 유형과 매체에 관한 지정어가 혼재되어 있다. 두 번째, 수많은 다른 리스트들이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 용어가 난해하다. 네 번째, 급증하고 있는 혼합형 매체를 적용하기 어렵다. 다섯 번째,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는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자료의 유형과 매체의 혼재라고 지적하였다. 부연 설명하자면, GMD 리스트에 [electronic Resource], [motion picture]와 같은 자료 유형에 해당하는 지정어와 [Microfilm], [Flash card] 등과 같은 매체에 해당하는 지정어가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¹²⁾.

2003년도 프랑크푸르트 목록 회의에서 추진된 GMD의 미래에 대한 논의 결과, GMD 리스트를 FRBR의 표현형 계층 표시를 위하여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시 말해 GMD 리스트에 혼재되어 있는 물리적인 포맷과 매체에 관한 사항을 SMD나 주기 또는 소장정보로 분리해 내고, GMD는 오직 내용적 측면에서 표현의 유형을 지시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GMD

12) Mauro Guerrini, "GMD : Its Function and its History,"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38, No. 2(2004), pp.61-74.

리스트 개발을 위하여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표현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¹³⁾

- Alpha-numeric (문자와 숫자)
- Music notation (악보 기호)
- Other notation (e.g., choreographic) (다른 기호)
- Sound (소리)
- Still image (정영상)
- Moving image (동영상)
- Three-dimensional object (삼차원 영상)
- Combinations of above (이들의 조합)

GMD의 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GMD의 명확한 범위 설정만이 이용자가 검색된 객체를 식별하고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GMD가 FRBR의 저작/표현형 계층의 통일 표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활용하고 매체와 관련된 정보는 SMD에서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GMD와 SMD가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편목자가 특정 객체를 특정 유형에 배타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용어 선택 기준을 명시한다.

V. FRBR 수용을 위한 우리 목록 체계 고찰

전 장에서는 AACR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JSC를 중심으로 FRBR 개념을 목록 체계 내에 반영하기 위한 동향을 살펴 보았다. 2007년 개정을 앞두고 있는 AACR은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FRBR의 수용을 위한 제 작업이다. FRBR 구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표현형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표현형” 통일 표제를 새로이 규정하고 표현 유형의 식별을 위하여 GMD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된 상태이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세계적 동향에 비추어 우리 목록 체계를 고찰해 보고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FRBR 개념 수용 가능성을 조망해 본다.

13)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JSC), *GMD Discussion Paper*, <http://www.collectionscanada.ca/jsc/docs/gmd.pdf> [cited, 2005. 3.10].

1. 통일 표제

우리 목록 체계는 KCR 4판으로 개정되면서 기본 표제와 통일 표제를 규정하지 않았다. 카드 목록에서 온라인 목록으로 변화되면서 관련된 저록의 집중을 위하여 기본 표목이 종전과 같은 중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표목의 표준적 적용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표준 규정 제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통일 표제 역시, 동일 주제의 문헌이나 연관 문헌들을 카드 목록 상에 한데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오늘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만, 한국목록규칙에서의 논의 대상은 아닐지 몰라도 기본 표제는 청구기호의 저자기호 자리매김을 위한 대상이되고 있으므로, 목록 작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로컬 도서관 수준에서라도 어떠한 기준이나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 표제 역시 동일 개념의 여러 다른 표현들을 빠짐 없이 수록한 질 높은 표준전거리스트를 마련하여 집중 기능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논의되고 있다¹⁴⁾.

FRBR의 구현을 위하여 <그림 5>에서 바바라 텔레트가 제안한 OPAC의 인터페이스에서는 '저작/표현형'서명이 기본 표제로 제시되었고 서명 저자사항, 출판사항, 소장사항 등 서지 기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OCLC나 LC에서 구현한 FRBR 사례에서도 저작 레벨로 서명저자 사항이 조합된 기본 표제가 배열의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이들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FRBR의 계층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저작, 표현형, 구현형, 아이템을 탐다운 형식으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기준으로 저작 또는 저작/표현형으로 구성된 특정 표목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서지 데이터의 기본 표제와 통일 표제 정보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OCLC의 구현 사례와 같이 전거 레코드의 '이름/서명' 또는 '통일서명'의 기본 표제가 FRBR의 계층형 배열을 위한 기준으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거의 생성과 유지만 전제된다면, KCR4의 FRBR 수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통일 표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목록 환경에서 연관 저록을 집중하고 저작 계층을 기준으로 저록을 배열하기 위해서는 통일 서명 전거 레코드의 역할을 강화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우리 도서관은 전거 통제에 대한 개념조차 미약한 상황이다. 통일 표제 전거 데이터는 극소수의 도서관에서 총서명 관리를 위하여 일부 구축되고 있을 뿐이다. "저작/표현형" 통일 표제 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AACR 25장의 추이를 주목하고 통일 표제 전거 데이터의 용도에 대한 재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 GMD 활용

FRBR 표현형 계층의 유형을 식별하기 위하여 JSC에서는 GMD 활용이 제안되고 있다. 자료

14) 김자후, "한국목록규칙 4판(초안)에 대한 제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2002), pp.235-255.

내용의 유형과 매체가 혼재되어 있는 현행 GMD 리스트를 전면 개정하여, 표현형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도구로써 GMD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한국목록규칙 4판에서는 자료의 유형을 단행본, 지도자료, 고서와 고문서, 악보, 녹음 자료, 화상 자료와 영상자료, 전자자료, 입체자료, 마이크로 자료, 연속간행물, 점자자료로 구분하고 각 장의 X.1.2장에서 자료 유형 기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ORMARC 기술규칙에서도 245필드의 서브 필드 h를 활용하여 자료 식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인쇄자료 이외의 각종 형태자료의 자료종별 성격을 나타내는 매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도서관에서는 한국목록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GMD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관에 따라 GMD와 SMD를 혼용하고 있거나, 독자적인 용도로 어휘 리스트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표 2>의 사례 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자료에 여러 가지 용어가 난립하고 있으며, <표 3>의 사례 3 -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GMD와 SMD를 동일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영미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며,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는 영미목록 규칙에서 추진하고 있는 GMD 개정 추이를 주목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2> 동일 자료의 GMD 용어 난립 사례

<p>사례 1) > 245 00 ▼a겨울연가 ▼h[비디오레코딩] / ▼d윤석호 연출. > 260 ▼a서울 : ▼bKBS Media, ▼c2002. > 300 ▼a비디오디스크 6장 : ▼b유성, 천연색 : ▼c4 3/4 in.</p>	<p>> 245 00 ▼a겨울 연가= ▼xWinter sonata : ▼h[비디오녹화자료] / ▼d윤석호 감독. > 260 ▼a서울 : ▼bKBS미디어, ▼c2003. > 300 ▼a7 DVDs : ▼b유성, 천연색 : ▼c12 cm.</p>
<p>사례 2) > 245 10 ▼a이웃집토토로▼h[컴퓨터 파일] / ▼d미야자키 하야오[감독]. > 260 ▼a서울 : ▼b대원DVD, ▼c2003. > 300 ▼aDVD 2매(124 분) : ▼b유성, 천연색 : ▼c4 3/4 in.</p>	<p>> 245 10 ▼a 이웃집 토토로= ▼x となりのトトロ ▼h [DVD] / ▼d 宮崎駿 原作・脚本・監督 : ▼e スタジオジブリ 制作. > 260 ▼a 東京 : ▼a 서울 : ▼b Studio Ghibli : ▼b Daiwon DVD, ▼c 2003(c1988). > 300 ▼a DVD 2枚(86分) : ▼b 천연색 : ▼c 12cm</p>

<표 3> GMD와 SMD가 동일한 사례

<p>사례 3) > 245 10 ▼a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h [DVD 비디오].▼n disc 2 : ▼p Special features / ▼d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 260 ▼a 서울 : ▼b 대원DVD, ▼c 2002. > 300 ▼a DVD video disc 1매(124분) : ▼b 유성, 천연색 : ▼c 12mm.</p>	<p>사례 4) > 245 10 ▼a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h [DVD] / ▼d 宮崎駿 原作・脚本・監督 : ▼e スタジオジブリ 制作. > 260 ▼a 東京 : ▼a 서울 : ▼b Studio Ghibli : ▼b Daiwon DVD, ▼c 2002. > 300 ▼a DVD 2枚(124分) : ▼b 천연색 : ▼c 12cm+</p>
<p>사례 5) > 245 10 ▼a智島 ▼h[지도] / ▼d국립지리원 編. > 255 ▼a축척 1:25,000 > 260 ▼a서울 : ▼b국립지리원, ▼c2001. > 300 ▼a지도 1매 : ▼c54 x 78 cm.</p>	<p>사례 6) > 245 10 ▼aOvertures▼h[음반]. > 260 ▼a서울 : ▼b同和出版社, ▼c[발행년미상]. > 300 ▼a음반1매 : ▼b33 1/3회전, 아날로그, 스테레오 : ▼c30 cm.</p>

VI. 결 론

파리 원칙을 대체하는 목록 작성의 기본 원리로 자료조직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FRBR은 이미 OCLC를 비롯한 서지 유틸리티 기관과 상용 편목 시스템 벤더에 의하여 응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미목록규칙에서도 3판 개정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FRBR 개념 수용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FRBR 관련 연구와 응용은 개념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서지 세계 적용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영미목록규칙 개정을 위하여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JSC에서도 FRBR 개념 수용을 위한 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표현형 계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통일 표제와 GMD의 용도 변경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FRBR 개념은 목록 체계 뿐 아니라, 차세대 지식 관리 및 정보 조직 프레임워크에 거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학계 및 도서관계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무관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관련 연구자와 서지 기구 그리고 현장의 목록 실무자들이 FRBR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주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라고 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